

가족의례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관한 연구*

- 미혼남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atisfaction with Life and Family Role Salience Perception through
Types of Family Rituals

- Mainly for unmarried males and females -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석사 김은영**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박정윤***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Master Kim, Eun Young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Professor Park, Jeong Yu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 연구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that the family rituals of unmarried males and females have on satisfaction with life and family role salience, recognizing the necessity to illuminate perceptions related to the original families of unmarried males and females through more diverse perspectives.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601 unmarried male and female adults over 20 years of age. For data analysis, SPSS Win 18.0 was used,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ales and

* 본 논문은 석사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주저자 : 김은영(greenish01@naver.com)

*** 교신저자 : 박정윤(pjy4838@cau.ac.kr)

female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family with inactive family rituals”, “family with active family rituals” or “family with moderate family ritual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family role salience depending on family type. Second, family type was classified as a degree of “relation” through common points of two variables, and each group was named as having a family with “satisfying relations,” “general relations,” or “deficient relations.” Third, in the case of males, life satisfaction was high when the level of family economy was high, when parents' first marriage and family actively participated in family rituals.

Key Words : 가족의례(family rituals), 가족역할중요도(family role salience), 생활만족도(Satisfaction with Lif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가족구성원들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 중심적인 생활양식을 가지게 되었다. 개인 중심적인 생활양식은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가족구성원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의 소외감, 피로감 등을 갖게 되면서 불행감이나 우울감 등을 느끼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현대의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느끼는 개개인의 상대적 박탈감과 삶에 대한 회의감이 사회적 이슈로 표면화되면서 사람들의 행복 추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행복과 관련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행복과 관련된 국내연구(김승권 외, 2008; 조희금 외, 2010)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개인의 행복감은 가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바쁜 일상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하고 가족 안에서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가

족의 유대관계는 악화되면서 개인의 생활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기숙·고정자·권희경·김득성·김은경·김향은·옥경희(2009)는 약화된 가족관계는 가족의례활동을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경험과 시간을 갖게 하여 가족결속감을 증진시켜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의례의 건강한 감정적 유대의 창출, 가족구성원의 인식변화, 정체감의 재정의, 의미감과 목표의식의 발견, 질서와 예측 기능성의 창출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기숙 외, 2009)을 통해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족의례는 가족구성원이 공유하는 반복적 활동이고, 보다 많은 상징적 의미와 감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상적이지 않는 행동이다. 가족의례는 한 가족의 문화적 가치가 다음 세대에 전달하며 가족구성원을 결속시키고, 뿌리의식을 심어주며, 민족적·문화적 가족정체감을 심어줄 뿐 아니라 구성원 각자의 정체감 형성, 유지,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가족생활을 예측할 수 있는 질서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족의례의 규정된 절차는 가족생활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조화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치료적인 기능과 함께 가족의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이기숙 외, 2009). 가족의례활동이 가족역할의 만족정도와 가족 간의 정서적 기능을 충족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일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 그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례활동이 개인의 생활만족도나 가족 간 역할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족의례에 대한 국내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가족의례활동 유형별 실태나 사회적 의미(박혜인, 2001; 이기숙, 2003; 조희금 외, 2010)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의례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유영주, 2004), 개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최혜정·김득성, 2009) 등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구의 가족의례관련 연구에서 가족 간의 가족의례(family ritual) 활동이 활발할 때 감정적 교류나 의미부여할 수 있고 이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불안, 우울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히며 관련이 있음(Dawn & Lynda, 2002)을 밝히고 있다. 또 서구에서는 일반가정의 부모역할 수행과 가족의례와의 관련성(Fiese, Hooker, Kotrany & Schwagler, 1993), 정신지체아동이나 미취학 장애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례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가족의례가 이들 가족의 보호요인이 되면서 부모됨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고 양육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음을 밝히고 있어(Gruszka, 1988; Bucy, 1995) 가족의례의 긍정적 역할을 알 수 있다.

가족관계와 가족구성원의 생활 변화를 예측을 위해서 가족문화로서의 의례적 활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가족의례의 양상이 개인의 생활만족이나 가족역할 중요도 인식과 연관성을 갖는지의 분석은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가족의 행복도나 건강성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인을 도출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행복한 가족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족의례는 일상화되어 장기간 유지되며 학습되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며 가족의례 유형화를 통해 개인의 생활만족도와 가족과 관련된 역할들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 중요도 등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의례 유형화가 개인과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가족단위의 공유하는 다양한 경험을 활성화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가족의례활동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의례가 개인의 생활만족도나 가족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행복한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해서 가족의례가 갖는 의미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성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의례유형의 경향성과 가족의례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미혼남녀에게 가족의례유형에 따른 개인의 생활만족도와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고, 미혼남녀가 형성하게 될 가족이 좀 더 건강하게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가족의례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의 또 다른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밝힘으로써 가족의례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선행 연구

1. 가족의례

가족의례(family rituals)는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반복적이고 공동으로 행해지는 활동으로, 그 속에는 축하의식과 그 가족만의 전통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정기적 상호작용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Doherty, 1997; Wolin & Bennett,

1984). 즉 가족축하의식에는 그 사회가 많은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돌잔치, 결혼식, 회갑연, 명절 행사 등이 있고, 가족 전통은 개별가정, 또는 가족구성원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생일, 기념일, 가족재회가 있으며, 정기적 가족상호작용 유형에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 상대적으로 의도성이 적은 계획 활동은 가족식사, 취침, 주말 여행 등의 행사가 포함된다.

가족의례는 객관적 수준과 주관적 수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Jones, 1973). 객관적 수준은 누구나 그 의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의례와 관련된 특정 행동이나 대상이 드러나도록 표현된다. 이에 반해 주관적 수준이란 외형 안에 내포된 의미를 말한다. 즉 어떤 의례형식이든 그 가족구성원만이 공유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가족의례는 가족구성원이 공유하는 활동과 그에 대한 가족의 해석으로 구성되며,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 수준이야말로 가족의례를 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Fiese et al., 1993; 정현숙·유계숙, 2006, 재인용).

생활과학에서 가족의례 연구는 미미한데 가족의례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가족의례의 변화, 관혼상제 중심의 실태와 사회적 의미를 밝히는 데 집중되어 있는 연구들(박혜인, 2001; 옥선화 외, 2000; 이기숙, 2003; 조희금 외, 2010)과 다른 하나는 가족의례와 가족구성원의 개인의 생활만족도 간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로서 가족의례의 효과에 대한 연구(최혜정·김득성, 2009)가 있다.

먼저 가족의례의 변화, 관혼상제 중심의 실태와 사회적 의미를 밝히는 데 집중되어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박혜인(2001)은 혼상제례를 중심으로 가정의례에 대한 생활사적 고찰을 통해 그 시대의 역사·사회맥락적 시각에서 가정의례를 살펴보고 가정의례의 새로운 지향·가정의례의 주제성 확립, 다양한 가정의례에 대한 열린 시각, 복

지 차원의 가정의례문화운동을 모색하였다. 또한 옥선화 외(2000)는 농촌의 가정의례는 연령이 낮고,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 기독교집단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가정의례에서 서구화되고 상업화된 가정의례로 변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조희금 외(2010)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의 횟수와 식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족여가시간과 활동, 가족여가 제약요소,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인식, 가족이 함께하는 연중행사 및 의례의 종류와 함께하는 가족, 결혼식의 절차와 비용에 대해 밝히고, 기념일의 종류와 기념일에 함께하는 가족, 제사 및 장묘문화, 명절의 실태 등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가족여가활동,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가족의례의 실태에 대해 연구하였다. 둘째, 가족의례와 가족구성원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혜정·김득성(2009)의 연구에서 기혼여성들은 가족의례의 실행 정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서 가족의례가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개인의 생활만족도, 정서·심리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서·심리적 측면에 건강성 증진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이 부분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가족의례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가족의례 중 하나인 가족여가는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가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여가활동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들(김지혜, 2009; 석미영, 2007; 정옥희, 2009)과 가족여가와 가족 기능 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김민정, 2008; 이민아, 2006; 정준구, 2008; 최소영, 2004)로서 여가를 실천하고 활성화하는 실천적 접근의 연구와 여가와 가족 기능 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로 동향을 알 수 있다.

가족여가정도·유형에 따른 가족여가 활동의 효

과를 살펴보면 가족여가활동의 정도·유형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이나 가족기능 및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김민정(2008)의 연구에서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가족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관리적 건강성, 경제적 안정성, 가족유대감,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유대감 등의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최소영(2004)은 가정지향적 활동과 교육체험 지향적 활동을 많이 할수록 가족 간의 유대감 증진 및 가정생활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가족여가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 기능 및 관계뿐 아니라 각각 하위변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족여가는 가족이 함께하는 일부이기 때문에 좀 더 범위를 넓혀 연속적이며 가족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가족여가의 상위 개념인 가족의례를 통해 가족의례가 가족에게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연구가 요구된다.

서구의 경우 국내에 비해 가족의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의례와 가족과 개인의 기능 간에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로서 개인의 정신적 안정과 성숙에 대한 연구(Dawn & Lynda, 2002), 부모와의 애착과 가족의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Leon & Jacobvitz, 2003; Thalhuber, 2002), 원가족의 가족의례가 미혼남녀의 가족의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Stacey & Carol, 2004) 등이 있다. Leon과 Jacobvitz(2003)는 성인애착은 가족의례의 질의 중요한 지표라고 하였다. 그들은 부부애착이 가족의 의례화 된 생활양식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불안정 애착을 가진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족은 경직된 의례를 가지며 의례가 결핍된다고 하였다. Thalhuber(2002)는 성인애착유형과 가족의례의 질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어머니로부터의 불안애착은 가족의례가 관례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서구의 경우 가족의례가 개인의 심리적 측면,

가족 관계·기능적인 측면 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관련성을 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연구의 경우 행위적인 측면과 사회적 의미 등의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고찰과 실태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며 서구와 같이 개인의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측면과 가족의 관계·기능적인 측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례의 전체 형태, 구성요소를 통해 가족의례가 개인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생활만족도와 가족역할중요도

생활만족도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Liu(1977)은 개인이 경험하는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 느낌의 복합적인 상태이며 Diener(1985)는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생활만족도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대체로 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 또는 일종의 태도라고 정의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영역과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선행연구(강수정·최혜정, 2010; 이정우·김연화, 2002; 오환일·김연화, 2003; 서혜영·이숙현, 2002)를 살펴보면 강수정·최혜정(2010)의 연구에서는 농촌주부들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아졌으며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정우·김연화(2002)는 도시주부들이 가족예절수행 정도가 높고, 식사예절수행정도가 높을수록, 가정의례를 잘 수행할수록 가족응집성이 높다고 하였다. 오환일·김연화(2003)는 도시 기혼남성의 가족예절수행 정도가 높을수록, 가정의례를 잘 수행할수록, 대화예절수행 정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가족의례 활동이나 정도가 개인이나 가족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를 통해 가족관련 요인이 개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에 관한 연구 대상이 기혼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생활만족도는 학교생활과 교우관계(김기영, 2001; 김영미·한예원, 2010; 조병남, 2009; 최애읍, 2008)에 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족관련 요인은 모든 가족구성원의 생활만족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련요인이 개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시각을 전환하여 연구대상을 기혼자 중심이 아닌 미혼자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역할중요도에 대한 연구는 Amatea 등(1986)에 의해 이루어졌다. Amatea 등(1986)은 생활역할중요도 척도(Life Role Salience Scales)를 개발하였고, ‘개인생활에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여러 역할에 부여하는 각각의 중요성이나 가치’라고 정의하였다. 그 하위영역으로 배우자 역할중요도, 부모 역할중요도, 가정경영 역할중요도, 직업 역할중요도를 포함하고 있다. 홍성례(2001)는 한국에서 Amatea 등(1986)의 생활역할중요도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배우자역할중요도, 부모역할중요도, 가정경영역할중요도의 세 가지 하위역할영역을 구분하여 가족역할중요도척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족역할중요도를 ‘가족생활에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족 역할에 대해 부여하는 각각의 중요성이나 가치’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가족과 관련된 요인에 중점을 두고 가족에서 핵심이 되는 배우자역할과, 부모역할, 그리고 개인이 가정에 부여하는 가치, 가정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 등에 대한 가정경영역할을 중심으로 한 가족역할중요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역할중요도의 선행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가족역할에 대한 개인의 생활만족도, 가치관에 따른 가족역할의 수행정도 등에 관한 연구들(조성연, 2007; 한유진·김선애, 2007), 가족역할중요도

인식과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홍성례, 2010), 가족역할과 심리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음에 대한 연구(차승은·한경혜, 2006; 김현주, 2003)가 있다. 한유진·김선애(2007)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남편이 부모역할에 대해 공평한 역할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부의 자녀양육수행 유능감이 높을수록 아버지 역할수행을 잘 한다고 밝혔다. 홍성례(2001)의 가족역할중도 인식과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에서 기혼 남성은 부모·배우자·가정경영의 가족역할인식이 높을수록 가족역할 수행이 높다고 하였다.

가족역할이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차승은·한경혜, 2006, 김현주, 2003)을 살펴보면, 차승은·한경혜(2006)는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역할이 남성에게는 정신건강에 유리한 반면 여성에게는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적고 더 큰 부담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역할은 남녀 모두에게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보면 만족스러운 가족역할수행은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재하다.

가족역할 중요도는 가족 간의 직간접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가족 상호작용 중 하나가 가족의레활동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레가 가족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가족의레와 가족역할중요성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없지만 국외의 경우 가족의레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적응성과 응집성이 높았고(Dawn & Lynda, 2002), 국내에서도 유사연구로 가족여가가 가족적응성과 응집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음(김성희, 1997; 송강영, 1999)을 고려할 때 가족의레가 가족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의레가 가족역할중요도인식에 어

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어려운 설문지 49부를 제외한 총 601부가 최종자료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III. 연구방법

3. 측정도구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개인의 가족의례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가족역할중요도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족의례유형은 가족의례의 하위요인으로 조사대상자를 군집화할 때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의례 유형의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가족의례유형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와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가족의례유형과 관련변인이 생활만족도와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20세 이상의 성인 미혼남녀이다. 자료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중심으로 편의 표집하였으며, 직접 방문조사, 우편조사, 전자메일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1년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3회에 걸쳐 30명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질문지의 모호성과 적합성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직접, 우편, e-mail을 이용하여 총 700명에게 배포되었다. 그 중 650부의 자료가 수거되어 수거율은 92.8%였으며, 그 중에서 성의 없는 응답이나 결측치가 있어 분석하기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다음과 같은 변인을 포함하였다.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종교, 형제수, 출생순위, 부모 맞벌이 여부, 부모결혼상태, 가족경제수준을 포함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가족의례 척도

본 연구에서 가족의례는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활동 중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의례의 형태로 저녁식사, 주말의례, 휴가의례, 연중의례, 특별의례, 종교의례, 명절의례를 포함하고, 구성요소로 정규성, 역할, 관습성, 참여 기대, 감정적 투자, 의미부여, 지속성, 계획성을 포함한다. 사용된 척도는 Fiese & Kline(1993)이 개발한 가족의례질문지(Family Ritual Questionnaire: FRQ)를 수정 보완하였다. 가족의례질문지는 형태인 저녁식사, 주말, 휴가, 연중의식(생일 등), 특별의식(결혼, 졸업 등), 종교의식(크리스마스 등), 문화적 민족적 전통(성인식, 명절 등)에 대해 각 8문항씩 총 56문항으로 의례의 예시는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8개의 문항은 가족의례의 구성요소인 정규성, 역할, 관습성, 참여 기대, 감정적 투자, 의미부여, 지속성, 계획성에 대해 각각 한 문항씩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서 가족의례의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며, 가족의례 형태의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의례의 활동이 활발하고 가족유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의례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alpha=0.933$ 이었다(<표 1> 참조).

3) 생활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말하며, 자신의 생활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Pavot et al., 1991)하였다. 척도는 Diener, Emons, Larsen & Griffin(1985)이 개발하고 김동직(1999)이 변안한 5문항의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본인의 생활에 대한 만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총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생활만족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820$ 이었다(<표 1> 참조).

4) 가족역할중요도 척도

본 연구에서 가족역할중요도는 개인이 가족생활에서 가족 역할에 대해 부여하는 각각의 중요성이나 가치로 정의하였고, 배우자역할중요도, 부모역할중요도, 그리고 가정경영역할중요도의 세

가지 역할영역을 가족역할중요도의 하위요인으로 포함한다. 척도는 Amatea 등(1986)의 척도(Life Role Salience Scales)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홍성례(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역할중요도는 배우자역할중요도, 부모역할중요도, 그리고 가정경영역할중요도의 세 가지 하위역할영역으로 구분된다. 하위영역별 각 10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배우자역할중요도는 결혼생활에 부여하는 가치, 결혼을 통해 얻은 만족감에 대한 기대, 결혼생활에 몰입하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려는 정도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역할중요도는 자녀에 부여하는 가치, 자녀양육에 대한 기쁨과 보람, 자녀양육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려는 정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가정경영역할중요도는 가정에 부여하는 가치, 가정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 가정운영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려는 정도 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리커트

<표 1> 측정도구 구성

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일반적 특성**		1-10	10	
가족의례*** 구성요소	정규성	1, 9, 17, 25, 33, 41, 49	7	.775
	역할	2, 10, 18, 26, 34, 42, 50	7	.831
	관습성	3, 11, 19, 27, 35, 51	7	.736
	참여기대	4*, 12*, 20*, 28*, 36*, 52*	7	.797
	감정적투자	5, 13, 21, 29, 37, 53	7	.857
	의미부여	6, 14, 22, 30, 38, 54	7	.861
	지속성	7, 15, 23, 31, 39, 55	7	.826
	계획성	8*, 16*, 24*, 32*, 40*, 56*	7	.851
		전체	56	.933
가족역할 중요도	배우자	1, 2, 3, 4, 5, 6, 7*, 8, 9*, 10	10	.865
	부모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803
	가정경영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851
			전체	30
생활만족도		1-5	5	.820

*: 역코딩한 문항임

** :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종교, 형제수, 출생순위, 부모 결혼상태, 가족경제수준, 부모 맞벌이 여부

***: 특별의례, 종교의례, 저녁식사, 주말의례, 휴가의례, 연중의례

적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가족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가족역할중요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alpha=.922$ 였다(<표 1> 참조).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 Scheffé e검증, 군집분석, 판별분석, 요인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보면<표 2>와 같다. 먼저 개인관련변인에서 살펴 보면, 성별의 분포를 살펴보면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3.4% 많았다. 연령은 ‘20세~25세’가 56.9%로 가장 많았고, ‘26세~30세’가 33.3%, ‘31세~39세’가 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무직’이 50.5%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이 16.3%, 생산·기술직이 14.7%, ‘자영업, 단순노무직, 비공식부분 취업 등의 ‘기타’가 9.3%, ‘전문직’이 9.2%의 순이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대졸 이하’가 70.7%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이하’가 17.3%, ‘대학원이상’이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3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개신교’가 39.9%, ‘불교’가 13.7%, ‘천주교’가 8.3%, ‘기타’가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형제수가 ‘1명’인 집단이 62.2%로 가장 높은

<표 2>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변인	집단	n(%)	변인	집단	n(%)
성별	남자	290 (48.3)	학력	고졸 이하	104 (17.3)
	여자	311 (51.7)		초대졸 이상	425 (70.7)
나이	20세-25세	342 (56.9)		대졸 이하	
	26세-30세	200 (33.3)	대학원 이상		
	31세-39세	59 (9.8)	종교	개신교	239 (39.9)
직업	전문직	55 (9.2)		천주교	50 (8.3)
	사무직	98 (16.3)		불교	82 (13.7)
	생산·기술직	88 (14.7)		기타	4 (0.7)
	기타	56 (9.3)		무교	224 (37.4)
형제수	학생·무직	303 (50.5)	부모 맞벌이 여부	맞벌이	266 (44.3)
	없다	51 (8.5)		그 외	334 (55.7)
	1명	374 (62.2)	부모결혼 상태	초혼	503 (84.0)
	2명	113 (18.8)		이혼	34 (5.7)
3명 이상	63 (10.5)	재혼		18 (3.0)	
그 외	63 (10.5)	별거		4 (0.7)	
출생순위	장남/장녀	298 (49.6)	사별	40 (6.7)	
	차남/차녀(3명 이상)	62 (10.3)			
	막내(2명 이상)	199 (33.1)			
가족경제 수준	외동아	41 (6.8)			
	하	102 (17.0)			
	중	464 (77.2)			
	상	35 (5.8)			

※변인 별 사례 수는 무응답을 제외한 것임

비율을 차지했으며 ‘2명’이 18.8%, ‘3명이상’이 10.5%, ‘없다’가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생 순위는 ‘장남/장녀’가 4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막내’가 33.1%, ‘차남/차녀(3명 이상)’이 10.3%, ‘외동아’가 6.8%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결혼상태는 ‘초혼’이 83.7%로 대부분이고, ‘사별’이 6.5%, ‘이혼’이 5.7%, ‘재혼’이 3%, ‘별거’가 0.9%의 순이었다. 가족경제수준은 ‘중’이 7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하’가 17.0%, ‘상’이 5.8%였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를 보면 맞벌이가 아닌 ‘그 외’집단이 55.6%로 ‘맞벌이’ 44.3%였다

IV. 연구결과

1. 가족의례유형의 분류

가족의례의 하위요인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가족의례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가족의례의 하위요인 간의 조합이 어떠한 군집으로 나뉘는지를 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적용하였고, 분류된 각 군집의 성격이 서로 다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절한 군집 수를 발견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방법 중 집단 간 평균 연결

법(Between-Group Method)으로 분석하였다.

군집의 빈도수와 군집특성을 고려한 결과 3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최종적으로 비계층적 방법인 K-평균 군집방법을 이용하여 3개의 군집으로 유형화 하였다. 가족의례 구성요소의 군집 분류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한 결과, 군집 1은 전체 601사례 중 100개가 올라로 소속되어 84.7%의 판별적중률을 보이고 있으며, 군집 2는 91.8%(179개), 군집 3은 99%(285개)의 적중률을 보여 전체 사례에 대해 93.8%의 판별적중률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개의 군집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가족의례 모든 구성요소 ‘정규성’(F=294.70 p<.001), ‘역할’(F=165.77, p<.001), ‘관습성’(F=3.74, p<.001), ‘참여기대’(F=143.66, p<.001), ‘감정적 투자’(F=417.66, p<.001), ‘의미부여’(F=427., p<.001), ‘지속성’(F=129.61, p<.001), ‘계획성’(F=181.6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가족의례의 구성요소 중 ‘관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에서는 군집2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군집1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관습성’에서는 군집 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군집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는 ‘특별의례’, ‘종교의례’, ‘명절의례’, ‘저녁식사의례’, ‘주말의례’, ‘휴가의례’, ‘연중의례’의

〈표 3〉 군집에 따른 가족의례의 구성요소

변인	M(SD)	군집1	군집2	군집3	F값
		n=118	n=195	n=288	
		M(SD)	M(SD)	M(SD)	
정규성	3.24(.75)	2.44(.52) ^a	3.90(.53) ^c	3.11(.54) ^b	294.70 ***
역할	2.85(.76)	2.06(.55) ^a	3.36(.70) ^c	2.82(.57) ^b	165.77 ***
관습성	2.81(.68)	2.67(.83) ^a	2.81(.71) ^c	2.87(.58) ^b	3.74 ***
참여기대	3.42(.78)	2.89(.82) ^a	4.03(.52) ^c	3.22(.64) ^b	143.66 ***
감정적 투자	3.68(.79)	2.63(.61) ^a	4.36(.47) ^c	3.64(.50) ^b	417.66 ***
의미부여	3.54(.82)	2.43(.57) ^a	4.24(.53) ^c	3.52(.51) ^b	427.54 ***
지속성	3.35(.80)	2.75(.81) ^a	3.93(.62) ^c	3.20(.63) ^b	129.61 ***
계획성	3.27(.86)	2.56(.76) ^a	3.98(.66) ^c	3.08(.66) ^b	181.60 ***

***p<.001

〈표 4〉 군집에 따른 가족의례의 형태

변인	M(SD)	군집1 n=118	군집2 n=195	군집3 n=288	F값
		M(SD)	M(SD)	M(SD)	
특별의례	3.24(.75)	2.76(.55) ^a	3.99(.41) ^c	3.42(.46) ^b	268.63***
종교의례	2.86(.84)	2.15(.63) ^a	3.48(.72) ^c	2.73(.68) ^b	148.15***
명절의례	3.73(.62)	3.14(.62) ^a	4.14(.41) ^c	3.70(.51) ^b	145.45***
저녁식사의례	3.12(.64)	2.47(.51) ^a	3.66(.47) ^c	3.02(.46) ^b	247.45***
주말의례	2.99(.68)	2.25(.46) ^a	3.60(.52) ^c	2.89(.46) ^b	305.56***
휴가의례	3.25(.70)	2.41(.53) ^a	3.87(.49) ^c	3.17(.44) ^b	358.08***
연중의례	3.45(.65)	2.71(.58) ^a	4.03(.39) ^c	3.36(.42) ^b	325.73***

***p<.001

구성요소에 대한 합을 평균으로 나타낸 것이다. 조사 대상자의 전체 가족의례 형태에 따른 군집을 살펴보면 ‘특별의례’(F=286.63, p<.001), ‘종교의례’(F=148.15, p<.001), ‘명절의례’(F=145.45, p<.001), ‘저녁식사의례’(F=247.45, p<.001), ‘주말의례’(F=305.56, p<.001), ‘휴가의례’(F=358.08, p<.001), ‘연중의례’(F=325.73,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세 군집 모두 ‘특별의례’, ‘명절의례’, ‘연중의례’와 같은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가족구성원에게 의미가 되는 기념일 등의 의례를 활발하게 하였고 군집별로 군집 2는 모든 가족의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군집 1은 모든 가족의례가 다른 군집보다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군집 명칭과 특징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군집 1은 가족의례와 관련된 구성요소에 대해 다른 군집들에 비해 평균값이 2.14~2.76으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보아 군집 1은 가족의례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으며, 가족역할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 형식적인 가족의례를 행하는 집단 특성을 볼 수 있었다. 특성을 통해 군집 1을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족’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2는 가족의례정도와 구성요소 평균값이 3.48~4.14로 다른 군집들에 비해 가장 높았다.

즉,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하며, 가족 간의 정서적 교류와 가족이 함께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개인이 속한 가족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다고 여기고 있었고 의례 관련한 역할 등을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집 2를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한 가족’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3은 가족의례활동이 다른 집단에 비해 중간 값(3)을 보이며, 가족 간의 정서적 교류와 가족이 함께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개인이 속한 가족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 등 실행정도는 군집 2보다 약하지만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군집 3은 가족의례에 대한 개별가족의 방식이 존재하지만 기존방식에 덜 얽매이는 경향으로 군집 2와 차이가 있었다. 이에 군집3을 ‘가족의례활동이 보통인 가족’으로 명명했다.

2. 가족의례유형별 인구학적 특성

가족의례유형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다. 인구학적 변인으로 하는 가족의례유형별 빈도분석 결과 성별, 직업, 가족경제수준, 종교유무, 부모 결혼상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5〉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변인	집단	n(%)	가족의레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족 n=118		가족의레활동이 활발한 가족 n=195		가족의레활동이 보통인 가족 n=288		χ^2 값
			n(%)	n(%)	n(%)	n(%)			
성별	남자	290 (48.3)	76 (64.4)	68 (34.9)	146 (50.7)	27.003***			
	여자	311 (51.7)	42 (35.6)	127 (65.1)	142 (49.3)				
나이	20세-25세	342 (56.9)	69 (58.5)	109 (55.9)	164 (56.9)	1.998			
	26세-30세	200 (33.3)	35 (29.7)	70 (35.9)	95 (33.0)				
	31세-39세	59 (9.8)	14 (11.8)	16 (8.2)	29 (10.1)				
직업	전문직	55 (9.2)	15 (12.7)	18 (9.2)	22 (7.7)	16.160*			
	사무직	98 (16.3)	17 (14.4)	38 (19.5)	43 (15.0)				
	생산·기술직	88 (14.7)	20 (16.9)	18 (9.2)	50 (17.4)				
	기타	56 (9.3)	8 (6.8)	13 (6.7)	35 (12.2)				
	학생·무직	303 (50.5)	58 (49.2)	108 (55.4)	137 (47.7)				
형제수	없다	51 (8.5)	11 (9.3)	21 (10.8)	19 (6.6)	4.740			
	1명	374 (62.2)	77 (65.3)	115 (59.0)	182 (63.2)				
	2명	113 (18.8)	20 (16.9)	35 (17.9)	58 (20.1)				
	3명 이상	63 (10.5)	10 (8.5)	24 (12.3)	29 (10.1)				
	출생순위	장남/장녀	298 (49.6)	55 (46.6)	101 (51.8)		142 (49.5)	6.732	
차남/차녀	62 (10.3)	15 (12.7)	18 (9.2)	29 (10.1)					
막내	199 (33.1)	40 (33.9)	57 (29.2)	102 (35.5)					
외동	41 (6.8)	8 (6.8)	19 (9.7)	14 (4.9)					
가족경제 수준	하	102 (17.0)	34 (28.8)	27 (13.8)	41 (14.2)	14.987***			
	중	464 (77.2)	79 (66.9)	157 (80.5)	228 (79.2)				
	상	35 (5.8)	5 (4.2)	11 (5.6)	19 (6.6)				
학력	고졸 이하	104 (17.3)	29 (24.6)	29 (14.9)	46 (16.0)	7.588			
	대 졸	425 (70.7)	79 (66.9)	137 (70.3)	209 (72.6)				
	대학원 이상	72 (12.0)	10 (8.5)	29 (14.9)	33 (11.5)				
종교	유	375 (62.6)	55 (46.6)	142 (72.8)	178 (62.2)	21.603***			
	무	224 (37.4)	63 (53.4)	53 (27.2)	108 (37.8)				
부모 맞벌이 여부	맞벌이	266 (44.3)	58 (49.2)	83 (42.6)	125 (43.6)	1.428			
	그 외	334 (55.7)	60 (50.8)	112 (57.4)	162 (56.4)				
부모 결혼상태	초혼	503 (84.0)	88 (75.2)	175 (90.2)	240 (83.3)	15.492*			
	이혼	38 (6.4)	11 (9.6)	5 (2.6)	22 (7.6)				
	재혼	18 (3.0)	6 (5.1)	4 (2.1)	8 (2.8)				
	사별	40 (6.7)	12 (10.3)	10 (5.2)	18 (6.3)				

*p<.05, **p<.01, ***p<.001

가족의례유형별 성별분포를 살펴본 결과 ‘가족의례활동이 보통인 가족’은 남녀의 비율 차가 1.4%로 성별에 의한 편중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족’은 남자 64.4%, 여자가 35.6%로 나타났으며, ‘가족의례가 활발한 가족’은 남자가 34.9%, 여자가 65.1%로 나타났다. ‘가족의례가 활발하지 않은 가족’은 남성의 비율이 높고, ‘가족의례가 활발한 가족’은 여성의 비율이 높아 성별에 의한 편중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을 변인으로 하는 가족의례유형별 빈도분석 결과 ‘가족의례가 활발하지 않은 가족’은 전체 전문직 비율(9.2%)에 비해 전문직 비율이 3.5%로 더 높았고,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한 가족’은 사무직(16.3%), 학생·무직(50.5%) 전체 비율에 비해 사무직 3.2%, 학생·무직 4.9%로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었으며, ‘가족의례가 보통인 가족’은 생산·기술직(14.7%), 기타(9.3%) 전체 비율에 비해 생산·기술직 2.7%, 기타 직업 2.9%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조사대상자는 자신의 가족경제수준을 17.0%가 ‘하’로 인식, 77.2%가 ‘중’으로 인식한 것과 비교해 보면 ‘가족의례가 활발하지 않은 가족’이 자신의 가족경제수준을 ‘하’로 인식하는 비율이 28.8%로 다른 군집에 비해 가장 높고, ‘가족의례가 활발한 가족’은 가족경제수준을 ‘중’으로 인식하는 조사대상자의 비율이 80.5%로 가장 높았다.

종교에 따른 가족의례유형별 빈도분석의 결과 조사대상자의 37.4%가 종교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가족의례가 활발하지 않은 가족’은 종교가 없는 조사대상자의 비율이 53.4%로 다른 군집보다 높은 비율을 볼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62.2%가 종교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가족의례가 활발한 가족’과 ‘가족의례활동이 보통인 가족’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조사대상자의 비율이 각각 72.8%, 62.2%로 높은 비율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종교를 매체로 한 가족의례활동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결혼상태는 ‘가족의례가 활발한 유형’과 ‘가족의례가 보통인 유형’은 부모결혼이 초혼비율이 각각 90.2%, 83.3%로 높는데 비하여 ‘가족의례가 활발하지 않은 유형’은 초혼비율이 75.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며, 전체 이혼(6.4%), 재혼(3.0%), 사별(6.7%) 비율에 비해 ‘가족의례가 활발하지 않은 유형’은 이혼(9.6%), 재혼(5.1%), 사별(10.3%)인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결혼유형이 가족의례활동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밝힐 수 없었으므로 추후에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진다.

3. 가족의례유형별 생활만족도와 가족역할중요도의 차이

가족의례유형에 따른 가족역할중요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6>와 같았다. 가족의례유형별 가족역할중요도 하위영역 모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한 가족’과 ‘가족의례활동이 보통인 가족’이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족’보다 배우자역할중요도 인식이 높았다. 둘째, 가족의례유형에 따른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에도 차이가 있었는데($F=19.58, p<.001$)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한 가족’이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족’보다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이 높았다. 셋째, 가족의례유형에 따라 가족경영역할중요도 인식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F=18.61, p<.001$)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한 가족’유형이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족’보다 가정경영역할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 가족의례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6>와 같았다. 즉,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한 가족’이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가족이 가족

〈표 6〉 가족의례유형별 생활만족도와 가족역할중요도 인식 차이

변인	M(SD)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족 n=118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한 가족 n=195	가족의례활동이 보통인 가족 n=288	F값	
		M(SD)	M(SD)	M(SD)		
가족역할 중요도 인식	배우자역할 중요도	3.75(.66)	3.47(.80) ^a	3.90(.59) ^b	3.76(.61) ^b	16.61***
	부모역할 중요도	3.59(.60)	3.32(.66) ^a	3.75(.54) ^c	3.59(.57) ^b	19.58***
	가정경영역할 중요도	3.99(.56)	3.76(.62) ^a	4.14(.48) ^c	3.99(.55) ^b	18.61***
생활만족도		2.92(.75)	2.58(.77) ^a	3.13(.71) ^c	2.91(.70) ^b	21.94***

***p<.001

의례를 활발하게 함으로서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가족이 함께하면서 개인이 가지는 가족의 의미가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4. 가족의례유형과 관련변인이 생활만족도와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의례유형이 생활만족도와 가족역할중요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 공산성 존재 여부를 파악한 결과 공차 한계값이 .66~.96이며,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5~2.07로 다중공산성의 위험은 없어 위계적 회귀분석이 가능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와 가족역할중요도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Model I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Model II에서는 가족의례유형을 가족의례활동이 보통인 가족 기준으로 더미변수(dummy variable)화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관련변인이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는 <표 7> 같았다. Model I은 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10.4%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유의미한 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beta = -.124, p < .05$), 부모 결혼상태($\beta = .100, p < .05$), 가족경제수준($\beta = .255, p < .001$)이었다. 즉, 남성일 경우, 부모 결혼상태가 초혼일 경우, 가족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Model II에서는 가족의례활동이 보통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족의례유형을 투입한 결과 15.7%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의례활동이 보통인 가족’이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고($\beta = .149, p < .001$),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한 가족’이 ‘가족의례활동이 보통인 가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49, p < .01$).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으며 기존의 연구(백경숙·권용신, 2007)와 일치한다. 가족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은 기존연구(조옥희·김경신, 2005)와

〈표 7〉 관련변인이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변인		Model I	Model II
		β	β
일반적 특성	성별	-.124 **	-.170 ***
	나이	.005	-.004
	직업	.007	.024
	학력	.078	.080
	종교	.043	.007
	형제수	-.040	-.026
	출생순위	.007	.020
	부모 결혼상태	.100 *	.072
	가족경제수준	.255 ***	.222 ***
	부모 맞벌이여부	-.015	.002
가족의례 유형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족		-.149 ***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한 가족		.149 ***
Constant(상수)		1.91	2.06
R ²		.104	.157
ad.R ²		.088	.139
F값		6.77 ***	9.04 ***

*p<.05, **p<.01, ***p<.001

- | | |
|-----------------------------|------------------------------|
| 1) 성별: 0=남자, 1=여자 | 2) 직업: 0=전문직 외, 1=전문직 |
| 3) 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 4) 형제수: 0=형제 없음, 1=형제 있음 |
| 5) 출생순위: 0=장남, 1=장남 외 | 6) 부모 결혼상태: 0=초혼 외, 1=초혼 |
| 7) 부모 맞벌이여부: 0=맞벌이 외, 1=맞벌이 | 8) 가족의례유형: 가족의례활동이 보통인 가족 기준 |

비슷한 맥락이다. 가족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 환경적으로 여유롭고 물질적인 부담으로 인한 포기나 좌절의 경험이 적을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 경제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가족경제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조사대상자일수록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한 가족’은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족’보다 가족 구성원 간에 가족의례를 함께하고 정서적인 교류가 활발하며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해지고 원가족과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가족관계에서 만족감을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보다 가족의례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한 가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가족의례가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삶의 질이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관련변인이 조사대상자의 가족역할 중요도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조사대상자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Model I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변인은 4.3%의 설명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beta=-.143$, $p<.001$), 가족경제수준($\beta=.123$, $p<.01$)이 가족역할중요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 남성이,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이 높았다. Model I에서는 가족의 레활동이 보통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족유형을 투입한 결과 13.2%의 설명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의레활동이 보통인 가족이 가족의레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족보다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을 높게 했고($\beta=.210$, $p<.001$), 가족의레활동이 보통인 가족이 가족의레활동이 활발한 가족이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76$, $p<.001$). 즉 가족의레활동이 활발한 가족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가족의레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족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자의 경우 가족역할중요도를 높게 인식했다는 기존의 연구(홍성례, 2010)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친화적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과거 남성의 경제적인 역할에서 남성의 가정생활참여와 그 안에서 가족역할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인식의 변화과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현재의 조사대상자들은 가정에서 가족역할중요성에 중요성을 높게 인식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보다 가족의레 유형이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의레활동이 활발한 가족’을 살펴보면, ‘가족의레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족’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에 많은 물질

〈표 8〉 관련변인이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변인		Model I	Model II
		β	β
일반적특성	성별	-.143 **	-.202 ***
	나이	-.024	-.037
	직업	-.074	-.051
	학력	.026	.028
	종교	.023	-.023
	형제수	.022	.038
	출생순위	.050	.066
	부모 결혼상태	-.031	-.068
	가족경제수준	.123 **	.079 *
	부모 맞벌이여부	-.013	.009
가족의레 유형	가족의레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족		-.210 ***
	가족의레활동이 활발한 가족		.176 ***
Constant(상수)		3.26	3.78
R ²		.043	.132
ad.R ²		.027	.114
F값		2.65 **	7.41 ***

* $p<.05$, ** $p<.01$, *** $p<.001$

- 1) 성별: 0=남자, 1=여자
- 2) 직업: 0=전문직 외, 1=전문직
- 3) 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 4) 형제수: 0=형제 없음, 1=형제 있음
- 5) 출생순위: 0=장남, 1=장남 외
- 6) 부모 결혼상태: 0=초혼 외, 1=초혼
- 7) 부모 맞벌이여부: 0=맞벌이 외, 1=맞벌이
- 8) 가족의레유형: 가족의레활동이 보통인 가족 기준

적·시간적·감정적 투자가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정서적 안정을 취하며, 가족의 지지를 받는 등의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원가족의 경험과 가족관계의 질은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한 가족’의 가족 구성원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변인을 예측함에 따라 미혼성인자녀에게 가족의례를 통해 가족의 건강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미래에 가족을 형성할 때에 큰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족의례를 적용한 가족생활교육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의례를 유형화하여 가족의례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가족의례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한 가족’집단은 생활만족도가 높고, 가족역할중요도의 인식이 높았다.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의례활동을 통해 친밀감, 결속감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가족의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면서 가족구성원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들은 가족이 정기적으로 가족의례를 지내오면서 과거부터 형성되어 온 가족의 역할, 가족의 전통성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족의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면서 가족역할중요도인식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의례의 정기적인 시행은 구성원들에게 다음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의 안정감을 준다. 또한 개인이 가족의례활동을 하며 자신의 가족에게 의미부여를 하며,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의례에 참여하기를 기대 등의 가족

의례활동을 하면서 가지는 감정적인 측면은 개인이 가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가족 고유의 가족의례가 가족 안에서 정착되고 가족이 함께 만들고 가족구성원끼리 특별한 의미를 공유하면서 개인이 생활만족감과 안정감을 가족의례를 통해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건강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며 가족의례의 활용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가족의례가 개인의 정서·심리적 상태, 삶의 만족도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시각에서 가족의례에 대한 후속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가족의례유형은 개인의 생활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한 가족’의 생활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은 가족의례의 한 형태인 가족여가와 비교해보면 가족여가에 참여하면서 우울증이 감소되고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김성희 외, 2000; 채선애 외, 2002)와 비슷한 맥락이며 기존의 연구들에 의해 지지된다. 즉 가족의례를 통해 원가족 안에서 긍정적인 경험,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적인 교류와 원만한 관계가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 시키는 기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족의례를 개인이 가족 안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으며 가족의 건강성이 유지되거나 강화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의례가 가족 간의 유대감의 강화하고 개인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한다.

셋째, 가족의례유형에 따라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차이를 보였으며, 가족의례유형은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한 가족’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은 원가족 안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경험을 통한 개인과 가족의 만족감은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개인이 앞으로 형성할 가족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가족이 일상생활에서부터 특별한 가족의례를 통해 체험하며 배우는 것은 앞으

로 가족을 형성하고 그 가족 안에서 성장하게 될 가족구성원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한 가족’은 가족역할의 중요도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의례유형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가족의례유형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심리적·정서적 특징을 후속연구에서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가족의례가 개인의 생활만족도와 가족역할중요도의 인식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이 될 수 있는 긍정적 의미가 밝혀졌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해서 정례적이면서도 가족관계를 강화하고 기능강화를 가져오는 가족의례문화를 개발해야 한다. 가족의 유대감을 가족의례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가족 안에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싶어 하는 가족이 대상으로 가족성장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가족성장아카데미 교육 안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가족의례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이 서울 및 경기, 인천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연구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음으로 후속연구에서 이를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미국의 가족의례 척도를 가지고 연구자가 예비조사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해 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 척도 안에 세부적인 활동 사항이나 가족의례를 이끌어가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가족구성원, 가족의례를 함께하길 바라는 가족구성원의 범위 등 각 구성요소를 더 구

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문지 개발이 필요하며 가족의례 척도에 대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유대가 약화되고,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의례활동이 생활만족도와 가족역할중요도 인식과 관련이 높음을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하였으며, 가족의례가 개인과 가족의 건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강수정·최정혜(2010). 농촌주부들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연구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2), 71-85.
- 2) 김기영(2001). 동아리 여가활동 참여와 대학생활 만족도의 관계. 오산대학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6, 25-52.
- 3) 김민정(2008). 부모의 주 5일 근무 여부에 따라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가족역가활동 정도가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성희(1997). 가정주부의 여가제약과 여가만족, 가족기능,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6(4), 461-473.
- 5) 김승권·장영식·조홍식·차명숙(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6) 김영미·한혜원(2010). 대학생의 교내 동아리 여가활동이 교우관계와 조직동일시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2), 35-46.
- 7) 김지혜(2009). 가족 중심 청소년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김현주(2003). 부부의 경제 및 가사역할의 수행과 인식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가족과 문화, 15(1), 97-130.
- 9) 박혜인(2001). 가정의례의 변화와 21세기의 지향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6(1), 31-54.
- 10) 서혜영·이숙현(2002). 아버지의 직업만족도 및 가족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4(3), 27-51.
- 11) 석미영(2008). 가족여가문화 프로그램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송강영(1999). 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유형과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 4(1), 131-140.
- 13) 오환일·김연화(2003). 도시 기혼남성의 생활예절수행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1, 5-25.
- 14) 옥선화·김주희·박혜인·신화용·한경혜·고선주(2000).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2: 농촌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화가정학회지, 38(10), 157-180.
- 15) 유영주·강학중·김밀양·김순기·김연·박정희·배선희·손정영·안재희·양순미·오윤자·이인수·이정연·이창숙·전영자·최희진·홍성례·홍숙자(2004). 새로운 가족학. 서울 : 신정.
- 16) 이기숙(2003). 가족의례: 한국인의 죽음의례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 175-208.
- 17) 이기숙·고정자·권희경·김득성·김은경·김향은·옥경희(2009). 현대 가족관계론. 서울 : 파란마음
- 18) 이민아(2006). 청소년의 가족여가활동과 가족건강성 연구: 중학교 2,3 학년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이정우·김연화(2002). 도시주부의 생활예절수행이 가족응집성 및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지, 17, 43-66.
- 20) 정옥희(2009). 도시정부의 가족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과천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정준구(2008). 장애자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여가 및 가족기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2) 정현숙·유계숙(2006). 가족관계. 서울 : 신정.
- 23) 조병남(2009).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조성연(2007).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부모됨의 의미와 감정이입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219-233.
- 25) 조희금·송혜림·박정윤·권태희·김경화·김주현·김혜영·윤소영·윤진숙·이진숙·정민자(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서울 : 여성가족부.
- 26) 차승은·한경혜(2006). 가족역할과 심리사회적 자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성과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81-114.
- 27) 최소영(2004). 가족 여가 참여정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최해읍(2008).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9) 최혜정·김득성(2009). 가족의례와 아내의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111-124.
- 30) 한유진·김선애(2007).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및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과 양육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37-46.
- 31) 홍성례(2001). 기혼 남성의 가족·직업 역할중요도 인식과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2) _____(2010).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가족 역할 중요도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5), 151-166.
- 33) Amatea, E.S., Cross, E.G., Clark, J.E. & Bobby, C.L.(1986). Assessing the work and family role expectations of career-oriented men and women: The Life Role Salience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831-838.
- 34) Bucy, J.E.(1995). An Exploratory study of family rituals, parenting stress and development delay in early childhood.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7(2A), 575.
- 35) Dawn Goettler Eaker & Lynda Henley Walters(2002). Adolescent satisfaction in family rituals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A developmental systems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4), 406-414.
- 36) Diener, E., R.A Emmons, R.J. Larson & S. Griffin(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37) Doherty, W.J.(1997). *The intentional family: How to build family ties in our modern world*. MA : Addison-Wesley Publishing.
- 38) Fiese, B.H., Hooker, K.A., Kotary, L. & Schwagler, J.(1993). Family rituals in the early stages of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33-652.
- 39) Gruszka, M.A.(1988). Family functioning and sibling adjustment in family with a handicapped child.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0(0B), 748.
- 40) Jones, P.D.(1973). *Rediscovering ritual*. New York : Newman Press.
- 41) Leon, K. & Jacobvitz, D.(2003). Relationships between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and family ritual quality: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Family Process*, 42(3), 419-432.
- 42) Lui, B.(1977). Economic and noneconomic quality of life. *The American J. of Economic and Sociology*, 36(3), 225-240.
- 43) Stacey R. Friedman & Carol S. Weissbrod(2004). Attitudes toward the continuation of family rituals among emerging adults. *Sex Roles*, 50(3-4), 277-284.
- 44) Thalhuber, K.K.(2002). Prenatal predictors of family rituals: Examining the contributions of parents' attachment representations and marital communi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 45) Wolin, S .J. & Bennett, L. A.(1984). family rituals. *Family Process*, 23, 401-420.

- 투 고 일 : 2013년 7월 1일
- 심 사 일 : 2013년 7월 6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8월 19일